

2022년 1월/제36호

의정소식

군민과 함께, 행복과 희망을 만드는 의회



단양군의의회

2022년 의장 신년사 -----	02
2022년 의원 신년사 -----	05
2021년 의정 결산 -----	11
단양군의회 회기운영 현황 -----	13
의원발의 조례안 -----	14
건의문 · 성명서 채택 -----	17
5분 자유발언 -----	20
군정질문 -----	33
단양군의회 모의 의정 -----	35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	36
신문스크랩 -----	45
2022년 회기운영 계획(안) -----	49
제8대 단양군의회 의원 현황 -----	50





군민과 함께

행복과 희망을 만드는 의회





“ 새해에는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만사형통하시길
기원드립니다. ”

장영갑 단양군의회 의장

—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2021년 신축년이 저물고 꿈과 희망이 있는 2022년 임인년(壬寅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단양군의회에 보내주신 아낌없는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새해에는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만사형통하시길 기원드립니다.

—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지난 2021년은 모든 것이 뒤흔들어진 한 해로 기억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행한 코로나19는 잡힐 듯 잡히지 않고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모두 얼어붙게 만들었고, 그 여파로 우리 지역경제는 차디찬 겨울날 처럼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군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코로나19에 대처하며 우리에게 당면한 많은 난관을 슬기롭게 잘 극복했고,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군민과 함께 의정활동을 펼쳐온 결과, 많은 성과를 거둔 한 해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코로나 상생지원금 군민 전부 지급, 소상공인 지방세 감면, 할인율을 높인 카드형 단양사랑 상품권 도입 등 정부시책에 발맞춘 다양한 단양형 경기부양책을 집행부와 함께 모색하며 어려움을 다각적으로 해소하는 한편,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위한 예방접종 실시 및 신속한 역학조사와 조치에 적극 동참하고 지원하며, 피해 최소화를 위한 노력에도 집행부와 보조를 맞춰왔고, 앞으로도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적극적으로 공조하겠습니다.

아울러, 단양케이블카 조성사업, 폐철도 관광자원화 사업 등 대규모 민간자본을 유치해 새로운 관광 랜드마크 조성에 첫발을 내딛기 위한 노력에 함께 했으며, 공격적인 관광마케팅과 단양관광관리공단 공사전환 등 급변하는 관광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처해 우리 단양의 새로운 백년 먹거리를 준비하는데도 우리 군의회는 집행부와 힘과 지혜를 모았습니다.

또한, 군민들의 군정 참여권과 지방의회의 독립성이 강화되는 내용으로 32년만에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을 앞두고, 단양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등 총 17건의 조례를 제·개정해 군정에 대한 주민참여의 폭을 넓히고, 지방의회 역할 강화를 위한 준비도 차질 없이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한 해, 총 12회 106일간 회기를 운영하여 지역 미래발전과 군민 행복지수 제고를 위해 예산안, 조례안 등 총 180건에 달하는 많은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했고, 행정사무감사와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 점검 등을 통해 군정 주요 현안사업의 추진상황과 발전방안을 세심하게 살펴왔습니다.

그 밖에도 복지 사각지대에서 소외받고 고통받는 군민이 없도록 현장을 발로 뛰며, 군민과 함께 희망을 만들어 가는 의회가 되기 위해 금년 한 해, 단양군의회는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이 모든 결과는 군민 여러분들께서 단양군의회에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으로 얻은 성과라 생각하며, 따뜻한 응원에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2022년 검은 호랑이띠의 해를 맞으며 호랑이가 주인공인 사자성어 가운데, ‘호랑이와 같이 예리하게 보고, 소와 같이 신중하게 행동 한다’는 의미를 가진 ‘호시우보(虎視牛步) 호랑이같이 예리(銳利)하고 무섭게 사물(事物)을 보고 소같이 신중(慎重)하게 행동(行動)한다’는 뜻의 말이 있습니다.

새롭게 맞이하는 2022년 임인년(壬寅年) 한 해, 우리 단양군의회는 ‘호시우보’의 의미를 새기며 의정활동을 펼쳐가겠습니다.

2022년은 군민 참여권 확대, 지방의회 권한 강화의 내용으로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되는 첫 해이며, 이에 따라 지역주민의 뜻을 대의하는 지방의회의 위상이 한 단계 높아지는 시기인 만큼, 우리 단양군의회도 그 위상과 책임에 걸맞은 역할을 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여기에 더해 코로나19 이후의 일상회복과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력 회복, 대선과 지방선거 이후 중앙과 지방정부의 변화상황에 대한 슬기로운 대처 등 지역적으로도 풀어가야 할 과제가 어느 때보다 산적해 있는 한 해입니다. 임인년 새해, 우리 단양군의회는 높아진 지방의회의 위상에 걸맞은 역할을 다하는 한편, 변화하는 시대상황을 제대로 읽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산적한 과제들을 집행부와 함께 해결해 가기 위해, 호시우보라는 말처럼 예리한 눈으로 현상을 살펴 대안을 찾으며, 지역발전이라는 목표를 향해 소처럼 우직하지만 당당한 걸음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군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현장을 중심으로 군민과 함께 호흡하며 소통하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 민간사회단체 등을 찾아 의견을 듣고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민의를 듣는다’, 의원별 담당요일을 지정해 민원을 상담하고 현장을 찾는 ‘순회민원상담제’, 관내 학생들이 참여하는 ‘모의의정 체험’등 의정특수시책을 지속 추진해 가겠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받은 경제충격 회복과 지역 미래발전을 위한 군정 주요 정책과 사업에 대한 꼼꼼한 검토와 현실성 있는 대안제시로 신뢰받는 정책 중심의 의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항상 배움의 자세로 급변하는 시대를 먼저 읽고 앞서 대처하는 혁신의 창의적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의원과 직원의 의정연수 내실화, 의정연찬 및 의원연구회 활성화, 선진지 벤치마킹 효율화 등을 통해 의정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가겠습니다.

—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

지난해에 단양군의회는 뜻깊은 개원 3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30년간 군민의 뜻을 대변하며 군민과 함께 걸어온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지역 미래발전과 군민행복을 위해 단양군의회가 걸어갈 30년의 시간을 준비하겠습니다.

아직도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인해 우리 군민들의 몸과 마음은 추운 겨울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추운 겨울도 결코 봄의 기운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조금 있으면 다가올 봄을 하루빨리 그리고 더 따스롭게 맞이하기 위해 오늘의 시간에 최선의 노력으로 의정활동을 펼쳐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2022년 새해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지난 한 해 동안 보내주신 성원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새로운 희망으로 맞이한 임인년(壬寅年) 새해, 무엇보다 소중한 우리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뤄지는 뜻깊은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단양군의회 의장 장 영 갑





2022년 의원 신년사

“
단양군민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

오시백 단양군의회 부의장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지나고 임인년(壬寅年) 새해를 맞았습니다.

지난 한 해는 계속되는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출현과 정부의 강력한 사회적거리두기 시행으로 군민 모두가 지치고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한마음 한뜻으로 잘 견뎌 주시고, 단양군의회에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 단양군민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단양군의회는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은 군민들의 고통을 분담하고 지역경제의 불씨를 살리겠다는 일념 하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군민들의 안정된 삶으로의 회귀를 위해 현장중심의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모두가 힘을 모은다면 지금의 이 위기도 잘 극복해내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단양군민 여러분!

임인년(壬寅年) 새해에는 복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 가정에 희망의 꽃이 따스한 별을 받으며 튼튼하게 자라
날 수 있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의원 신년사

“ 존경하고
사랑하는
단양군민
여러분! ”

김광표 단양군의회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단양군민 여러분!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해는 2년간 지속된 코로나로 인해 모두가 힘들고 지친 시간을 보냈습니다. 2022년도 우리는 여러 가지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팬데믹이라는 풍랑은 우리 사회를 어느 곳으로 내동댕이 칠지 모릅니다. 물가, 고용, 세금, 이자율 등 각종 경제지표도 우리를 힘들게 할 것이고, 코로나로 인한 직접적인 감염에 대한 공포와 가족과 이웃들과의 단절로 인한 우울감, 집회와 이동에 대한 통제로 인한 불편함 등은 지속적으로 우리를 괴롭히겠지요.

저는 의회에서 의원으로 활동한 3년간 우리 단양의 저력을 보았습니다. 주요 관광시설에 대한 투자와 창의적인 창업으로 단양의 경제는 전국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성장의 동력을 잃지 않고 한 단계 더 성숙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자연재해의 극복과, 농촌일손 부족에는 온 군민이 나서서 함께 땀을 흘리며 이겨내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대규모 행사가 없는 와중에도 소규모 모임을 통해 문화와 예술의 힘을 조금씩 길러내셨고, 학교에서는 선생님들께서 우리 아이들을 혼신의 힘을 다해 키워내셨습니다.

해뜨기 전 새벽이 가장 춥다고 하지요, 봄의 새싹은 겨울의 차디찬 들판의 혹독함을 견디고 힘차게 돌아옵니다. 저는 우리 단양군민들께서도 엄혹한 현실 속에서도 지혜와 협력의 저력으로 우리 삶의 터전을 잘 지켜내시고 단양을 더 나은 고향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 역시 임기의 마지막까지 군민여러분의 장도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댁내 평안과 건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 존경하고
사랑하는
단양군민과
출향인사
여러분 ! ”

조성룡 단양군의회 의원

—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단양군민과 출향인사 여러분!
그리고 600여 단양군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단양읍과 단성면, 대강면, 적성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조성룡 의원입니다.

새해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2022년 임인년(壬寅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모든 일에 소원 성취하는 뜻깊은 한 해가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지난해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한 전대미문의 세계적 보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3만여 군민 여러분과 600여 공직자가 한마음 한뜻으로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으나 온전한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또 다시 군민 한분 한분의 고통과 인내의 시간이 요구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어 너무나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의원 역시 좀 더 많은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민생과 좀 더 가까운 의정활동을 펼치고자 하였으나 혹여나 사랑하는 군민들께 피해를 주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앞서 찾아뵙는 것도 조차 조심스러워 의정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아쉬움 가득한 한 해를 보낸 듯 합니다.

그러나, “현장에 가면 답이 보인다.”는 굳은 신념으로 주민들께서 말씀만 해 주시면 언제라도 달려갔고, 지역 현안의 가려운 곳과 불편한 곳을 긁어 드리고 한시라도 빨리 해결해 드리기 위해 마을 구석구석을 찾아다니면서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아주 작은 것을 해결해 드렸는데도 주민들께서 과분하게 격려해주시고 따뜻하게 응원해 주셔서 큰 보람을 느끼고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할 수 있었음에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과 출향인사 여러분! 2022년 새해에도 민생 현장을 발로 뛰며 군민의 눈높이에 맞는 “조성룡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부지런한 황소처럼 열정을 담은 최선의 노력으로 군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원에 작게나마 보답하면서 군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행복한 삶을 견인하는 다양한 의정활동을 결코 게을리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2022년에도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2022년 임인년(壬寅年) 새해! 검은 호랑이의 힘찬 기운과 함께 건강한 모습으로 가정과 일터에서 소망하는 모든 일에 소원 성취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2022년 의원 신년사

“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희망찬
임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김영주 단양군의회 의원

—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희망찬 임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드리는 것이 도리이나 서면으로 인사드리게 됨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새해에도 군민 여러분의 가정마다 웃음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 소원성취 하시기를 바랍니다.

8대 의회가 개원된 이래로 저 김영주는 군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으나 코로나19와 수해로 마음만 전전긍긍하면서도 만남과 소통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민중심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저 김영주는 새해에도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군민 여러분이 저에게 부여한 막중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 항상 열린 마음으로 군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군민과 함께 하는 의정 활동을 펼쳐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난해 군민 여러분이 보내주신 성원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나날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소망이
꼭 이루어져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훈 단양군의회 의원

존경하는 단양군민 여러분! 2022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어느 때보다 더 간절한 소망으로 새해를 맞았습니다.
그 소망이 꼭 이루어져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2022년은 분명 다른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러 번이를 만들어내며 지속적
으로 위협하겠지만 우리를 굴복시키지는 못 할
것입니다. 전례 없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스스로 방역의 주체가 되었고 협력과 양보와
배려로 하나가 되어 극복했습니다. 서로 공감하고
연결된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우리는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단양군민 여러분!

군민 여러분의 부름을 받고 제8대 단양군의회
의원으로 활동한 3년 6개월, 정말 열심히 뛰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기 위해 동네 구석구석을
누비며 귀를 기울였고 민원과 숙원사업 하나라도
더 해결하기 위해 밤새워 고민하고 담당자들을
설득하기 위해 무진 애를 쓰기도 했습니다. 지역
발전과 삶의 질 개선에 필요한 조례를 만들었고 5분
발언, 군정질문을 통해 새로운 정책과 대안을 제시
했습니다.

그 순간순간 여러분이 늘 함께해 주셔서 든든했고
행복했습니다. 제도나 정책의 아이디어도 여러분이
주셨고 그 해결방안도 여러분에게서 얻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작은 일 하나 해결에 마냥 기뻐하며
고마워하셨고 힘든 일에는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해 적지 않은 성과를 냈지만
부족함도 많았습니다. 미처 살피지 못 한 일도 많았고
미처 돌보지 못한 이웃들도 많았습니다. 하나씩
돌아보며 남은 임기 동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8대 단양군의회 임기를 마치며 인사를 드릴
때에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끝까지 응원해주시고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단양군민 여러분!

희망은 어려움을 이기는 가장 큰 힘입니다. 임인년
(壬寅年) 새해는 더 큰 희망, 더 강렬한 소망을 품고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 꼭 성취하시고 가정에 평안과 사랑이 넘치기를
두 손 모아 기원합니다.

“ 군민
모든 분의 건강과
가정마다의 화목을
기원합니다.”

강미숙 단양군의회 의원

— 항상 제 마음속에 함께하는 단양군민 여러분!

辛丑年이 역사의 뒤편으로 묻히고 壬寅年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군민 모든 분의 건강과 가정마다의 화목을 기원합니다.

2021년은 끝날 줄 알았던 코로나가 더 가까이에서 우리를 위협하며 일상을 흔들어놓고 남아있던 감성마저 얼려버렸습니다. 그러나 ‘꿈과 희망이 있는 살기 좋은 단양’을 만들기 위해 군민 모두가 위기를 기회로 힘을 합해 노력하면서 우리 단양은 큰 피해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아직은 멈추지 말고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한발 한발 더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항상 제 마음속에 함께하는 단양군민 여러분!
8대 의회가 시작된 지 3년 반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주민 여러분들 만나면서 한 마음이 되어 슬픔, 기쁨을 함께 하고자 했습니다. 집에서 맞이해 주신 분, 길에서 맞이해 주신 분, 발에서 맞이해 주신 분, 그 외 어디서나 이웃처럼 반갑게 대해주신 모든 분!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주민들을 만날 때마다 의원의 신분으로 실천해야 할 것들이 바로 내 곁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새삼 느끼며 불편한 점들을 그때그때 바로 해결해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 늘 안타깝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인간만사 새옹지마(塞翁之馬)’라는 말이 있습니다. 당장 밀어닥친 ‘불행’이 오히려 ‘다행’이 되기도 하고, 그 ‘다행이 불행의 씨’가 되기도 합니다. 옛 성인들의 가르침 가운데도 ‘내일 일은 ‘내일 걱정’으로 충분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근심, 걱정은 접어 두시고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노력 하십시오. 왜냐하면 좋은 일만 감당하고 살기에도 ‘인생의 시간’은 너무 짧으니까요.

壬寅年에도 저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은 말과 행동으로, 안주(安住)라는 감미로운 유혹과 변화라는 험난한 여정을 두려워하지 않고 정의로운 마음으로 군민들에게 신뢰받는 의원이 되도록 여러분들과 같은 곳을 바라보며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군민 모든 분의 건강과 가정마다의 화목을 기원 합니다.

2021년 의정결산

2021년도 단양군의회 의정활동 결산

군민과 함께 행복과 희망을 만드는 의회

2021년은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모두가 전력을 다한 한 해였습니다. 우리 단양군의회도 모든 의정활동의 초점을 '군민의 삶의 안정'에 두고 발로 뛰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지난해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해지자 세계보건기구(WHO)는 감염병 최고 경고 등급인 '팬데믹'을 2020년 3월 11일 선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로부터 1년 10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그 누구도 그 끝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여전히 국민들은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듯 2021년은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모두가 전력을 다한 한 해였습니다. 우리 단양군의회도 모든 의정활동의 초점을 '군민의 삶의 안정'에 두고 발로 뛰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특히 지난 9월 집행부와의 긴급 간담회를 통해 정부의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군민(전 군민의 7.2%)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고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고자 충청북도 지자체 중 최초로 예비비를 사용해 상생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지난 8월 2일에는 코로나 극복을 위한 원포인트 제300회 임시회를 열어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에 따른 집합금지업종 및 영업제한업종 개인사업자 주민세 감면 ▲착한임대인 재산세 50% 감면 ▲고급오락장 과세율 인하 ▲교통운수사업자 자동차세 감면 등의 내용을 담은 '단양군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만장일치로 처리하기도 했습니다.

지방의회 본연의 기능을 위해서도 충실한 활동을 해왔습니다.

2021년도에 우리 단양군의회는 총 12회 106일간의 회기를 운영하여 84건의 조례와 13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심사하였고, 3차례의 2021년도 추가 경정 예산안과 2022년 본예산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부로부터 89건의 자료를 제출받아 15건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을 요구하였고, 36개소의 주요사업장을 현지 점검 하여 29건의 의견제시 등 시정을 요구를 하였으며, 45건의 군정질문을 통하여 군정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2022년 시행되는 개정지방자치법은 '군민들의 군정 참여권 확대',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 강화로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한 새로운 변혁의 계기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이에 발맞춰 단양군의회도 지방의회의 본연의 역할에 더욱 충실하고 책임을 다하는 대의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丹陽

단양



2021년도 단양군의회 회기 운영 현황

회기별	활동기간	주요 처리 안건
제294회 임시회	1. 25. ~ 1. 28. (4일)	•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 • 단양관광관리공단 조직변경안 • 공유재산 무상 사용·수익허가 동의안
제295회 임시회	2. 18. ~ 2. 25. (8일)	• 조례안심사(2일 / 8건 ⇒ 원안7, 수정1) • 2020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사후관리특별위원회 활동 (3일 / 36건 ⇒ 6건 지적)
제296회 임시회	3. 23. ~ 3. 25. (3일)	• 2020년회계연도 결산감사위원 선임 • 단양군립노인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 •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2일 / 6건 ⇒ 6건 포함)
제297회 임시회	5. 11. ~ 5. 20. (10일)	• 예산결산심사(4일 / 2021년도 제1회 추경) • 조례안심사(2일 / 11건 ⇒ 원안8, 수정3) • 도담지구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청취 • 단양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청취 • 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안 청취
제298회 정례회	6. 9. ~ 6. 23. (15일)	•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15건 지적) • 조례안심사(1일 / 7건 ⇒ 원안3, 수정4) • 예산결산심사(1일 / 2020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
제299회 임시회	7. 12. ~ 7. 19. (8일)	• 2021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하반기 계획 청취 • 조례안심사(1일 / 3건 ⇒ 원안2, 수정1)
제300회 임시회	8. 2. (1일)	• 단양군 지방세 감면 동의안
제301회 임시회	8. 20. ~ 8. 30. (11일)	• 군정질문(33건) • 예산결산심사(3일 / 2021년도 제2회 추경)
제302회 임시회	9. 28. ~ 10. 8. (11일)	• 조례안심사(2일 / 12건 ⇒ 원안11, 수정1) •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3일 / 36개 사업장 점검 / 지적 및 개선요구 29건) • 단양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의견 청취
제303회 임시회	11. 1. ~ 11. 10. (10일)	• 단양군 농산업인력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2021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2년 신규사업 계획 청취 • 조례안심사(2일 / 12건 ⇒ 원안9, 수정3) •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1일 / 2건 ⇒ 2건 포함)
제304회 정례회	11. 25. ~ 12. 16. (22일)	• 조례안심사(2일 / 11건 ⇒ 원안7, 수정4) • 예산결산심사(11일 / 2021년도 제3회 추경 및 2022년도 본예산) •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1일 / 5건 ⇒ 5건 포함) • 2022년도 단양장학회 출연 계획안 등 4건 • 2022년도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2022년도 산림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제305회 임시회	12. 20. ~ 12. 22. (3일)	• 조례안심사(2일 / 20건 ⇒ 원안17, 수정3)
계	12회 / 106일	

의원발의 조례안

연번	의결일자	조례명	발의자	주요내용
1	2021. 2. 25. 제295회 (임시회)	단양군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조성룡의원	「지방행정동우회법」제정(2020. 3. 31.)에 따라 단양군 지방행정동우회를 지원하여 이를 활성화 함으로써 지방행정 발전에 기여하고 군정참여를 통한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 제정
2	2021. 5. 20. 제297회 (임시회)	단양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	조성룡의원	단양군 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단양군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고자 조례 제정
3		단양군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이상훈의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의류수거함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재활용 촉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 제정
4	2021. 10. 8. 제302회 (임시회)	단양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조성룡의원	지역 사회의 법질서 확립과 치안 협력을 위해 노력하는 재향경우회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및 사업 규정을 통해 군민의 안전과 공공의식 고취 등 지역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 제정
5	2021. 12. 22. 제305회 (임시회)	단양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장영갑 의원 외 6명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정·시행(2022. 1. 13.)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주민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 제정
6		단양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훈 의원 외 6명	「지방자치법」 제103조에 따라 2022년 1월 13일부터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지방의회의 의장이 처리하여야 하므로 단양군의회 모범공무원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 제정
7		단양군의회 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정안	조성룡 의원 외 6명	「지방공무원법」 제77조1항에 따라, 2022년 1월 13일부터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복지제도,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지방의회의 의장이 처리하여야 하기에 그 근거를 마련하고,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조례 제정

연번	의결일자	조 례 명	발의자	주 요 내 용
8	2021. 12. 22. 제305회 (임시회)	단양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광표 의원 외 6명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전부개정되어 2022년 1월 13일 시행 예정인 바, 일부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정책지원전문인력(정책지원관)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여 조례를 현행화 하고자 조례 일부 개정
9		단양군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 제정안	강미숙 의원 외 6명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전부개정되어 2022년 1월 13일 시행 예정인 바, 단양군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 에게 지급하는 시험수당의 지급근거를 마련하고,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조례 제정
10		단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성룡 의원 외 6명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2022. 1. 13.시행)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 하고자 조례 일부 개정
11		단양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영주 의원 외 6명	「지방자치법」 제4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단양군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 · 장애 · 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조례 일부 개정
12		단양군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강미숙 의원 외 6명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 변경하고자 조례 일부 개정
13		단양군의회 의원윤리 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이상훈 의원 외 6명	「지방자치법」 제43조 및 제44조 개정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조례 개정
14		단양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 제정안	장영갑 의원 외 6명	「지방공무원법」 제77조2항에 따라 단양군의회 소속 장애인 공무원의 근무환경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조례 제정
15		단양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정안	오시백 의원 외 6명	「지방자치법」 제103조에 따라 단양군의회에서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근거를 마련 하고,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조례 제정

의원발의 조례안

연번	의결일자	조례명	발의자	주요내용
16	2021. 12. 22. 제305회 (임시회)	단양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제정안	장영갑 의원 외 6명	「지방자치법」 제103조에 따라 단양군의회에서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여비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조례 제정
17		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광표 의원 외 6명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항을 개정
18		단양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오시백 의원 외 6명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조례 개정
19		단양군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조성룡 의원 외 6명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조례 일부 개정
20		단양군 마을단위 액화 석유가스(LPG) 공급 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오시백 의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라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마을의 LPG 공급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들의 연료비 절감 및 에너지 복지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해 조례 제정
21		단양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영주 의원 외 6명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2022. 1. 13.시행)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조례 제정
22		단양군의회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지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시백 의원 외 6명	예산운영의 투명성 확보하고 불합리한 예산 집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조례 일부 개정

쌍용양회공업(주) 폐기물매립시설 조성 '강력 반대'

성명서

단양군의회는 쌍용양회공업(주)에서 영월군 쌍용리에 설치계획인 폐기물매립시설 조성 사업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단양군민과 함께 강력히 반대한다.

쌍용양회공업(주)에서 시멘트 채굴 종로지구에 추진하는 폐기물매립시설은 지난 60여 년 동안 국가 기간산업이라는 미명하에 시멘트 생산과정에서 다량의 분진,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배출 등으로 지속적인 고통을 받아 온 지역 주민의 피해를 한신짝처럼 내팽겨치고 주변 환경이 받게 될 치명적인 위협을 경시한 채 기업주의 경제 논리만을 내세운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또한, 폐기물매립시설 규모가 매립면적 191,225㎡, 매립기간 16년, 매립용량 560만 톤의 대단위 매립용량이고, 사업대상지 일원 지하에 절리와 동공이 무수한 석회암 지대 카르스트 지형의 특성상 침출수 유출 시 지하수 오염 확산이 예측 불가능하여 그 피해가 광범위하게 발생하지 않는다고 단정 지어 판단할 수 없기에 남한강 상류의 수질오염과 환경훼손 등을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매립시설 인근에 있는 서강이 침출수로 오염될 경우 이 서강이 영월읍 내에서 동강과 만나 남한강이 되고, 남한강은 다시 양수리에서 북한강과 만나 한강이 되므로 폐기물매립시설 주변 주민들뿐만 아니라 충북 북동부(단양, 제천, 충주)와 경기도 남동부(여주, 양평)를 비롯한 수도권 2,000만 시민의 식수원과도 직결되는 문제로 사태의 심각성이 크다 할 것이다.

지난 60년 동안 파헤쳐 놓은 공장지역과 폐광지역은 청정 지역으로서의 면모가 회복될 수 있도록 친환경적으로 복구하는 것이 그동안 분진과 악취로 고통 받아 온 지역주민에 대한 인자상정(人之常情)이고 국민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는 길이다.

이에 단양군의회 의원 전원은 그동안 분진과 악취로 고통받아온 지역주민과 한강을 젖줄 삼아 생활을 영위해 온 인근 자치단체 주민 모두가 깨끗한 환경에서 수준 높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을 강력히 반대 한다.

2021. 3. 29.

단양군의회 의원 일동



시멘트세 관련

「지방세법」 및 「지방재정법」 개정법안 국회 동시 통과 촉구

건의문

존경하는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님!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박재호 의원님!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박완수 의원님! 행정안전부 전해철 장관님! 산업통상자원부 문승욱 장관님!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계시는 노고에 대하여 3만 단양군민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지역의 시멘트 3사는 국가 산업발전에 중요한 기반을 다져왔으며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견인한 주역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시멘트 제조과정에서 다량의 분진, 미세먼지, 악취, 질소산화물 배출 등 막대한 환경 오염의 그늘을 드리우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시멘트 생산지 주변지역 주민들은 천식, 만성폐쇄성 폐질환 등 피해가 심각하여 쾌적한 환경 속에서 건강한 삶을 보장 받아야 할 국민의 기본권인 생존권마저 위협받는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따라서, 시멘트 생산으로 막대한 이윤을 얻은 시멘트 제조업체는 주변지역 환경오염 저감과 지역주민에 대한 피해보상, 그리고 그동안 개발에서 소외되었던 주변지역의 균형발전을 지원해야 할 책무가 있으며, 주변지역 주민들은 건강상의 피해를 보상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20대 국회 때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강원 동해, 태백, 삼척, 정선)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지만 통과되지 못했고, 21대 국회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 함평, 영광, 정선)이 2020년 10월 시멘트 생산량 1톤당 1,000원을 과세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발의했지만 안타깝게도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이형석 의원(광주 북구을)이 얼마 전 2021년 11월 1일, 국회 행안위 국정감사 후속 조치와 시멘트 업계 부담을 감안한 시멘트 생산량 1톤당 500원을 과세하는 내용의 절충법안을 대표 발의하였기에 3만여 단양군민은 이번에는 행안위 법안소위 심사안건 상정과 논의가 더욱더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하는 바가 매우 큼니다.

다만, 3만여 단양군민이 21대 국회의 시멘트세 신설 법안 발의를 지켜보면서 심히 우려하는 것은 시멘트 생산량 1톤당 1,000원을 과세하는 내용이 500원으로 하향 철충된 사항과 국회가 지방세법만 개정하고 지방재정법은 개정하지 않는 우를 범하는 것입니다.

개정법률안 제안이유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외부불경제 효과를 야기하는 시설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과세 목적에 따라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화력발전·원자력발전 지역 자원시설세의 65%를 발전소 소재 시·군에 배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또한 세수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멘트 생산시설이 있는 시·군에 배분하여 피해지역 개발과 주민 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 개정법률안과 동시 발의된 지방재정법 개정법률안의 국회 통과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혹여, 지방세법 개정법률안만 통과된다면 시멘트 생산으로 인한 지역의 환경 파괴와 대기오염, 분진 공해 등으로 지난 60년 동안 정신적·건강적 피해를 고스란히 감수해온 주민들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시멘트 생산량에 따라 지방세를 과세하여 시멘트생산 지역의 희생에 합당한 지역개발 재원으로 사용되어야 하기에 **지방세법과 지방재정법은 반드시 동시에 개정**이 되어야 할 것이며, **지방세법과 지방재정법이 동시에 개정되지 않는다면 단양 군의회는 지방세법 개정을 강력히 반대하는 바**입니다.

이에, 단양군의회는 3만 군민의 염원을 담아 금번 제21대 국회에서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과세에 대한 **지방세법과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조속히 동시에 통과되기를 강력히 **추구**합니다.

2021. 11. 10.

단양군의회 의원 일동



단양 수중보 건설 사업 관련

“어제의 과오를 오늘에 투영시켜 내일의 경계로 삼자”

안녕하십니까? 단양군의회 강미숙 의원 인사드립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장영갑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꿈과 희망이 있는 살기 좋은 단양을 만들기 위해 힘쓰고 계신 류 한우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늘 제 마음속에 함께하는 단양군민 여러분! 코로나19와의 전쟁이 여전히 지속되는 가운데, 농번기로 바쁜 요즘 얼마나 고단하고 힘드십니까? 예전의 일상을 간절히 그리며 묵묵히 견디고 계시는 군민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과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하루 속히 평범한 일상과 마주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단양 수중보 건설'사업에 대해 3만 여 군민과 함께 상세히 공유 하고자 합니다. 제가 '단양 수중보 건설'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30여 년의 긴 시간동안 진행되어온 단양군민의 숙원사업인 '단양수중보'건설에 대해 그동안 경과를 정리하여 우리 군민들이 그 사실을 정확히 알고, 지금으로부터 약 15년 전, 전임 군수 재임 시 일어났던 일을 재조명함으로써 "어제의 과오를 오늘에 투영시켜 내일의 경계로 삼고자"함이 오늘 '5분 자유발언'의 취지이며 목적입니다.

먼저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1976년~1986년 충주댐건설과 신 단양 이주가 이루어졌습니다. 1988년~2005년 수많은 민원제기, 청원, 타당성용역을 통해 드디어 2005년 11월 단양군 일대 적정수위 유지방안 조사를 통해 지형 및 지질조건, 계획성, 시공성,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단양읍 심곡리→ 적성면 애곡리에 사업비 491억 원, 사업공정 3년으로 수중보건설 결정(2021년 2월 8일 당시 서○국회의원과의 면담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491억 원의 예산은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정확히 결정한 예산액은 아니고, 사업비 500억 원 이상이 되면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하므로 일단 491억 원으로 하루 속히 착수하고 부족한 예산은 추후 추경을 통해 확보하기로 계획했던 것이라 하였습니다.)

2006년 8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들어가 공사가 곧 시작 되는가 했더니 2007년 7월 복병이 나 타났습니다. 단양읍 심곡리에서 단성면 외중방리로 변경 해달라는 청원서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제출하게 됩니다.

2007년 12월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변경 전과 변경 후 어느 안이 더 비교 우위에 있는지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곤란하다. 그러나 단양군민의 20년 숙원사업으로, 추진계기도 단양군민의 요구에 의한 것이고 수중보건설 후 지역경제 활성화 계획을 시행하는 것도 단양군이며 손해자도 단양군민인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사업내용도 단양군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수중보 위치를 변경하는 것으로 시정권고가 내려오고, 이후 추가되는 예산은 단

제29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2021. 6. 9.)
강미숙 의원

양군에서 부담하더라도 꼭 위치변경을 하겠다고 2009년 4월 19일 국토부 ↔ 단양군, 동년 4월 28일 수자원공사↔단양군이 많은 논란 끝에 협약서를 체결하게 됩니다.

협약서 내용 중요한 부분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4조(사업비부담)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제9조에 의한 총 사업비 중 수중보 변경이전에 책정된 사업비 492억 원을 부담하고 단양군수는 이를 초과 하는 사업비를 부담한다.

제17조(시설물 운영 및 유지관리비)

시설물 운영 및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본 사업의 요구자이며 수혜자인 단양군수가 부담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단양군수와 시설물 관리를 위탁받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별도 협약을 체결한다.

제21조(민원처리)

수중보로 야기될 수 있는 유람선운항, 내수면 어업보상 등 지역민원은 단양군에서 책임지고 처리한다.

2011년 6월 24일 드디어 역사적 기공식이 개최됩니다.

10년이 지난 2021년 현재, 그 동안의 진행과정을 통해 단양군민의 염원이 어떠했는지, 예견치 못한 상황으로 공사가 얼마나 오랫동안 지연되어 왔는지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20년 기다려 왔는데 2년 더 못 기다리냐”던 전 국회의원과 전 군수의 주장대로 이제와 돌이켜 볼 때 노예계약 같은 협약서 내용에 따르면서까지 위치변경을 할 만큼 절실했고, 단양군에 실익이 있는지... 이는 우리 군민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그 어처구니없는 협약서를 작성하고 서명하면서 군의회 동의 받은 절차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군의회도 전혀 몰랐던 협약서 전체적인 내용 중 핵심부분을 다시 한 번 살펴보면 시설물은 준공과 동시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무상 귀속되고, 관리하는 수자원 공사가 하되, 준설도 하고, 쓰레기 부유물처리도 다 단양군이 하고, 매월 1회 이상 수질검사도 하고, 수중보로 야기될 수 있는 모든 민원은 단양군이 처리한다. 거기에다 운영 및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본 사업의 요구자이며 수혜자인 단양군수가 부담한다?

군민 여러분! 군수님!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어떻게 국가와의 협약이 이렇게 불공평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면서까지 위치를 변경하고자 했던 진정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 혼자만의 궁금증일까요?

다음은 단양군에서 부담해야 할 위치 변경에 따른 사업비입니다. 총 사업비 612억 원 중 국가부담 544억 5천만 원, 단양군부담 67억 5천만 원 ※ 2012년 폭우로 공사 중 유실되어 100억 원 추가 부담분은 다행히 설계사 및 시공사가 부담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것에 대해 군수님께서서는 부당하다 생각되어 법적인 판단을 통해 책임소재를 정하고자 소를 제기하였으나 1심, 2심, 대법원 판결까지 최종 패소하였습니다. 그 비용으로 또 1억 2천만 원이 소요 되었습니다.

판결문 내용에서 ‘최초 채택된 지점에 사업을 시행할 경우 전액 국고 부담으로 할 수 있었음에도 위치변경에 따른 이익이 더욱 크다고 판단하여 자발적으로 단양군수가 추가 공사비 등을 부담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이를 반영하여 변경지점에 대한 타당성 재조사를 거쳐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이 사건 수중보로 인한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은 대부분 단양군과 그 주민들에게 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2020년 4월 담당부서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향후 수중보 유지관리비 부담내역은 계산된 적이 없으며, 향후 10년간 투입될 군비 지원 재정 규모도 추계 불가하다.’고 했습니다.

군수님! 단양군이 부담한 67억 5천만 원은 한번이고 이미 부담했습니다. 이것보다 앞으로 계속 부담해야 할 운영비 및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이 걱정스럽습니다. 군수님께서서는 단양군민의 수장으로서 명운을 걸고 국가하천의 유지관리는 국가가 책임지도록 잘 설득 협약하여 수중보로 인한 단양군의 재정 부담이 더 이상 없도록 애써주십시오.

단양군민 여러분! ‘단양수중보 건설’의 전체적인 진행과정을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서두에 말씀 드린바와 같이 과거에 있었던 일을 재조명 하는 것은 이제 와서 누구를 탓하자는 것이 아니고, 군민 여러분이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고 판단하시고, ‘어제의 과오를 오늘에 투영시켜 내일의 경계로 삼자함.’입니다. 다가올 무더위와 계속되는 코로나19, 예방접종 꼭 하셔서 각자 건강 지키시고 날마다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농폐기물 처리개선 정책방안 제안”

존경하고 사랑하는 단양군민 여러분!

진정한 민의를 대변하기 위해 애쓰고 계시는 장영갑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고 계시는 류한우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단양읍과 단성, 대강, 적성면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조성룡 의원입니다.

먼저, 제300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장영갑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환자가 급증하고 전국 곳곳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4차 대유행'이 본격화되는 등 모두가 힘겹고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여름 휴가철 관광 성수기 시작을 즈음하여 거세진 확산세로 지역의 농산물 판로가 어려움에 봉착했고, 관광산업 소상공인들을 비롯한 자영업자의 피해 또한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되어 마음이 무겁습니다.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는 할 수 있다는 자긍심으로 군민 모두가 기본 생활 방역 수칙 준수와 코로나 백신 접종에 적극 동참하여 다시 한 번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농업용 폐비닐과 폐농약병 등 영농폐기물 적기 수거에 대해 집행부의 적극적인 해결을 위한 정책 제안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정부의 변함없는 지자체 예산지원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영농 폐비닐과 폐농약 용기를 수거하는 영농폐기물 수거사업은 「폐기물관리법」과 「환경공단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생활폐기물에 속하여 수거처리의 책임은 지자체에 있으나 처리는 한국환경공단이 대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총괄하는 환경부는 수거비를 국비로 지원하고 지자체에서는 수거보상비를 부담하여 환경공단과 민간재활용업체에서 수거 및 처리를 위탁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영농폐비닐 수거비 국고보조는 kg당 10원으로 올해 전국적인 수거비 보조액은 20억 4천만 원이며 또한, 폐농약용기 수거보상의 경우 정부와 지자체, 작물보호협회가 3:3:4 비율로 부담하며 올

제30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1. 8. 2.)
조성룡 의원

해 정부예산은 65억 3백만 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단양군의 영농폐비닐 수거비는 연간 1천 7백 톤을 수거할 수 있는 국비 1천 7백만 원이며, 수거보상금은 1억 7천만 원으로 도비가 20%인 3천 4백만 원이고, 군비는 80%로 1억 3천 6백 원입니다.

2017년부터 최근 5년간 매년 영농폐기물 수거 물량 1천 7백 톤에는 변함없습니다.

물론, 1억 8천 7백만 원 예산도 변함이 없는 것을 보면서 전국 지자체에서만 환경을 걱정하고 정부는 나 몰라라 하는 형국은 아닌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기에 5년 동안 동결된 중앙정부 예산지원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둘째, 연간 6만 톤이 넘는 농촌지역 영농폐비닐 방치의 문제입니다.

농촌지역에 발생하는 영농폐비닐은 2015년부터 최근 4년간 32만 톤으로 한국환경공단에서 19만 7천 톤, 민간업체에서 7만 톤을 수거하고 나머지 6만 톤 가량은 농촌지역에 방치되고 있다는 언론 보도를 보았습니다.

우리 지역에 예를 들면 더 쉬울 듯합니다.

최근 한국환경공단의 영농폐기물 수거 실적을 보면 2018년 1,686톤, 2019년 1,671톤, 2020년 1,648톤, 2021년에는 현재까지 1,427톤을 수거했는데 이는, 폐기물수거업체가 한국환경공단과 계약한 수거 물량만 가져갔기 때문입니다.

결국 일부 마을에서는 지난해 발생 된 영농폐비닐이 오늘 현재까지도 마을에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환경오염 우려는 물론 관광 단양의 이미지에도 흠집 노릇을 하고 있어 주민들로부터 대책 마련의 목소리 또한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영농폐기물 수거 물량을 지역별 영농규모에 맞게 확대 · 조정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셋째, 영농폐기물의 수거 목표 물량과 정부 예산을 대폭 확대하여 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건의할 것을 촉구합니다.

영농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환경부나 중앙정부에서 모르는 척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국 지자체에서 제대로 건의를 하지 않은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농촌지역의 주민들이 힘들게 분리 배출한 것을 적기에 수거하지 않아 수거함은 차고 넘치고 있고 일부 폐농약 용기류는 식아서 주변을 오염 시키는 경우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환경공단에 영농폐기물 수거를 사정을 해도 안 가져가는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주민들도 지쳐가고 있는 모습을 혹시 중앙정부에서는 모르고 계시나요? 예산의 문제인지? 아니면 수거 관리 시스템의 문제인지 환경부에서 제대로 대처할 수 있도록 영농폐기물의 수거 목표 물량과 정부예산을 대폭 확대하는 개선방안을 정부에 강력히 건의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넷째, 수거 집중기간 운영 방안 모색과 “생산자 책임재활용(EPR)” 품목지정 등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추진을 제안합니다.

우리 군에서도 자연분해 필름 등 친환경 영농자재 보급과 영농폐기물 수거 경진대회, 각종 캠페인 전개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한국환경공단과 연계한 수거 집중기간을 설정하여 인력을 투입하고 수거업체에 즉시 인계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를 추진하는 등 다양한 추진 방법을 검토하여 개선할 것을 제안합니다.

아울러, 환경부에서 “생산자 책임재활용” 의무대상 품목에 영농필름을 포함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7. 21부터 40일간 입법예고 중에 있으니 시행령이 통과되면 강력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도 기대해 봅니다.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영농폐기물 수집에 최선을 다하시는 농민들로부터 영농폐기물을 적기에 수거하지 못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적으로 영농폐기물 처리 방안이 개선되기를 거듭 제안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특별히 관심가지고 시청하고 계시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단양군민들과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울산리 골프장(리조트) 건설과 관련하여”

존경하고 사랑하는 단양군민 여러분! 장영갑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류한우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김광표 의원입니다.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전 세계와 우리 단양군민들은 지속적인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의 삶의 터전은 붕괴되기 직전까지 몰려 있으며, 사회적 단절로 인해 정신적 우울감이 증대되고 있고,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은 더더욱 외롭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고통스러운 동참으로 유지되는 방역시국이 조속히 종식되고 소중한 일상으로 복귀하 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저는 오늘 우리 단양군이 울산리 산 74-35번지 일원에 민자 유치로 추진 중인 골프장과 숙박시설 등의 휴양단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7월 27일 우리 군과 주식회사 원익엘앤디는 “사계절 관광휴양시설 개발사업”에 관련된 협약서를 작성하고 사업의 첫 발을 떼었습니다.

울산리는 아직 개발이 되지는 않았지만, 단양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보석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해발 800 부근의 아름다운 식생과, 마을 이름처럼 완만한 구릉이 이어지는 울산리는 자그마한 알프스와 같은 풍광과 개발 잠재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대규모 민자 유치 사업이 침체된 대강과 울산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 넣고 나아가 단양군의 관광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면, 쌍수를 들어 환영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대규모 개발은 대규모 환경 파괴와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1000억 원의 투자라는 빛에 가려 혹 우리가 보지 못한 무언가가 있는 것은 아닌지 신중하게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선 울산리에 추진 중인 관광휴양시설은 “골프장”위주의 시설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총 사업면적 120만 제곱미터 중 인공구조물이 들어서는 787,000제곱미터의 65%인 507,000 제곱미터를 골프장의 그린에 차지하고 있으며 리조트와 스파의 규모도 일반적인 골프텔보다 조금 큰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30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1. 8. 30.)
김광표 의원

일단, 이 “골프장”이라는 시설에 대해 언급하겠습니다. 2020년도 1월 기준으로 전국에 대략 500여개의 골프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당시 건설되고 있는 골프장이 20여개 남짓이었고, 2021년도만 해도 코로나로 인한 골프장 수익성 향상의 영향 등으로 금산군, 서천군, 장흥군, 거제시, 광양시, 부안군, 함평군 등의 지자체들이 작게는 1,000억 원에서 많게는 수천억 원 규모의 골프장이 포함된 리조트를 새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히 골프장 전성시대라 할 것입니다. 울산 리조트가 개장하게 될 수년 후에는 대략 550~600개의 골프장이 운영될 것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골프장이 붐 터지듯이 신설되고 있지만, 불과 수년 전만 하더라도 골프장, 그것도 지방 골프장의 영업이익은 매우 낮아서 2015년 기준으로 법정관리나 자본 잠식된 골프장이 90여개나 되었다고 합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해 저대면 야외 스포츠 붐과 연계되어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고급화 차별화된 시설이 아니라면 향후 골프장 공급의 과잉시대에 살아남기 힘들 것입니다.

골프 붐이 일던 시절 많은 골프장이 만들어 졌던 일본의 골프장들 중 현재 흑자를 내는 골프장이 58%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도 우리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군유지를 제공하는 사업이기에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고 지속가능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환경적인 부분에서 골프장은 필연적으로 산림파괴, 수질오염, 생태계 훼손, 지하수 고갈, 농약과 비료의 다량 살포로 인한 문제 등을 유발하고 있으며, 여기에 더해 인근마을 구성원 간 갈등 심화와 생존권 위협과 같은 문제는 이미 수많은 골프장에서 경험하고 있는 일반화된 문제로서 재론이 필요 없을 정도입니다.

최근만 하더라도 의령 리온cc에서 약품이 무단 방류되어 생태하천이 오염된 사례가 있었고, 자굴산 골프장 인근 마을에서는 골프장 조성 이후 지하수가 고갈되어 주민생활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사례가 있으며, 양평군 양동면의 골프장 인근에는 농약에 오염된 물이 계곡과 농지로 흘러들어가고 있다는 의심이 지속되기도 하였습니다.

또 시흥시 솔트베이 cc 주변의 주민들은 골프장에서 야간조명 기준치의 200배가 넘는 빛 공해로 인해 인근 생태와 농작물 생산 감소로 인한 심각한 피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6월에는 부산 기장군의 한 골프장 주변에서 골프장에서 뿌린 농약으로 추정되는 원인으로 백 만마리 이상의 벌이 떼죽음을 당했으나, 피해주민이 직접 피해 증거를 찾아서 입증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몇 가지 사례를 들었으나, 골프장 주변의 이런 문제점은 골프장과 민가가 인접해 있는 지역에서는 흔하게 볼 수 있는 모습들입니다. 지자체에서 골프장 농약 현황을 관리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마저도 고독성, 맹독성 농약을 사용하고 있는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지속적인 저독성 농약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추적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매년 골프장에서는 18홀 기준으로 1톤 가량의 농약을 사용하고 있고, 이 농약들 중 일부는 어쩔 수 없이 주변지역으로 흘러갈 수 밖에 없습니다.

골프장이 인근 마을과 충분히 이격되어 있거나, 생태적으로 영향이 없는 지역이라면 걱정할 필요가 없겠으나, 우리 울산지역은 지리적, 환경적으로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울산리 주민들께서 지하수 또는 간이상수도를 음용수와 농업 및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고 골프장건설 예정지가 마을 직상부에 위치하고 있어 지하수 고갈과 수질오염이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상기 서술한 농약과 빛 공해도 인접 주민 생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골프장에서 발생한 하수는 필연적으로 죽령천으로 유입될 수 밖에 없어서 단양 골지의 관광지인 사인암지역을 비롯하여 대강면 장림과 단성면 북상 북하리에도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골프장 건설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지자체들과 개발업체들은 골프장이 들어서면 막대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한다고 선전하지만, 골프장위주의 관광단지 조성이 고용, 관광객 유치, 생산유발 효과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

하다고 합니다.

우선 세수증대에 대해서 살펴본다면, 전국 대부분의 지방 골프장이 지자체에 납부하는 재산세는 1억 원 ~ 5억 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는 골프장이 없어도 토지에 붙는 세금을 계산한다면 거의 의미가 없는 수준입니다.

또 지역민에 대한 고용도 풀 뽑는 일 등 일용직이나 비정규직이 대부분이며 그 숫자도 미미합니다. 관광객 유치도 골프장의 특성상 하루 최대로 계산하여도 18홀 골프장의 하루 이용객은 많아야 300여명 수준입니다. 이마저도 대부분의 시간을 골프장 내에서 라운딩으로 보내며 숙박과 식사를 골프장 내부 시설에서 이용하기 때문에 경제적 파급효과가 골프장 바깥으로 확산되기 힘든 측면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단양군 관내 기 운영 중인 골프장의 세수 확보 내역은 어차피 내야하는 토지분을 제외한 주민세와 건축물 재산세는 1,000만 원 이하이며, 코로나로 인한 호황으로 수십억 원의 흑자가 발생했던 2020년도의 법인분 지방소득세도 2,500여 만 원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3,500만원이 골프장으로 인한 지방세 세수 규모의 거의 대부분입니다.

또 상시 고용인원은 약 28~30여명 수준으로 숙박시설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도 고용효과도 그 규모에 비해 크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골프장이 위치하고 있는 매포읍 가평리 주변에 식당이나 상가가 보이지 않는 모습을 보신다면, 그리고 그곳 주민들이 골프장으로 인해 어떤 이익을 얻고 있는지를 살펴 보신다면 골프장 건립의 경제적 파급효과라는 장밋빛 구호가 얼마나 허구적인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우리지역과 비슷한 농촌지역의 골프장 여러곳을 방문해서 살펴보고 그 지역 주민들과 대화하면서 파악해 본 바로는 타지역 골프장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는 않았습니니다. 주민들도 처음에는 경기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에 농산물 판매장이나 매장을 골프장 주변에 만들어 보기도 하지만, 식당 한두 곳 외에는 별다른 경제적 효과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 2007년 울산리와 비슷한 입지조건에 건설되는 무안태봉골프장의 취소처분 1심 공판에서 재판부가“골프장 운영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증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이익에 비하여 골프장 건설로 인하여 주민들의 생존권이 침해당하고 지역 자연환경이 파괴되는 손실이 훨씬 크다”고 판결 한 것은 우리에게 시사 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반적인 골프장과 우리지역 골프장의 현황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본의원이 이렇게 골프장의 부정적인 면을 나열한 이유는“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개발은 안된다는 논리를 내세우려 함도 아닙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군민과 주민들, 그리고 집행부가 아직 늦지 않은 시점에 우리에게 다른 대안은 없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절차를 거치기 바라며, 정말 신중히 생각하고 토론하고 고민하여도 골프장 사업을 유치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라 결정된다면 그 피해를 최소화 하고 주민들과 단양군의 이익은 극대화 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군민여러분께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백두대간 소백준령의 울산지역의 군유지에 과연 골프장이 들어오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지, 대안은 없는지, 올해부터 구체화 될 도립수목원과 연계하여 30만평의 군유지를 활용하여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예를 들어 친환경 힐링 캠핑장이나 체험단지 등의 다른 관광사업은 없는지에 대해 전문가, 주민, 집행부가 모여서 토론하는 자리를 만들고 고민해 보는 시간과 절차를 가져볼 것을 제안합니다.

적절한 대안을 찾을 수 있다면 소수의 인원이 찾는 골프장이라는 녹색 사막 대신 자연과 환경이 살아 숨쉬는 대한민국의 알프스로 울산을 키우고 대강의 죽령과 방곡을 연계하여 많은 사람이 찾고 설수 있는 대규모 힐링휴양단지로 거듭나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개발 이익을 우리 지자체와 주민들에게 돌아가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미 협약서도 체결한 마당에 늦은 것은 아닌가 생각할 수 있지만, 아직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지금이야 말로 늦지 않은 때입니다. 또 이런 대규모 사업은 투명성과 공정성이 우선되어야 하므로 차후에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이런 절차는 꼭 필요합니다.

둘째, 충분한 토론과 의견수렴에도 불구하고, 결국 골프장을 중심으로 한 휴양시설이 더 적합하다고 결론이 난다면, 최소한 지하수 고갈과 하천 오염문제, 농약문제와 빛 공해 등 주민 삶에 항구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들이 최대한 해소될 수 있도록 충분한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또한, 이 사업은 천혜의 입지를 가지고 있는 단양의 군유지를 활용하여 이루어 지는 사업이고, 최근 골프장의 호황으로 보았을 때 막대한 개발이익이 예상되는 만큼 이 시설이 단양군의 관광 활성화에 최대한의 시너지를 이루어 낼 수 있는 대책을 만들어 주십시오!

현재 협약서에는 개발 이익의 일부분이라도 주민을 위해 사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울산지역 주민들이 개발이익의 일정부분이라도 향유할 수 있도록 이를 명문화 시키고, 캠핑장이 예정되어 있는 저수령 정상부는 군에서 직접 개발하여 주민들이 캠핑장을 운영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울산리 민자 유치를 추진하느라 많은 고생을 하신 집행부의 노력도 단양군의 발전을 위한 고심의 발로였다는 점에서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그러나, 먼 훗날 뒤돌아 보아도 후회하지 않을 개발을 위해서 한번만 더 돌아보고 가다듬는 절차를 거쳐 가기를 바랍니다. 또, 수십 년 간 발전이 정체된 지역민들의 절박성을 이용하여 행여나 주춧돌을 잘못 놓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피치 못한 개발이 이루어지더라도....우리 군민이 원할 때는 언제라도 저수령 정상에 올라 지금처럼 불 꺼진 밤에는 은하수도 마음껏 감상하고 반딧불이 나는 모습도 볼 수 있도록 친환경적인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단양군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역인구 감소 해결과 관광 단양의 이미지에 걸맞는 “단양군 장거리 대중교통 복지실현 대응 촉구”

존경하고 사랑하는 단양군민 여러분! 그리고 진정한 민의를 대변하기 위해 애쓰고 계시는 장영갑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아울러 군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고 계시는 류한우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단양읍과 단성, 대강, 적성면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조성룡 의원입니다.

먼저, 제305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장영갑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전대미문의 위기 상황에서 희망과 기대를 품고 출발한 금년도 신축년 한해도 어느덧 10여 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단계적 일상 회복을 시행한 지 불과 45일 만에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가 부활하면서 평범한 일상을 되찾기 위해 또다시 감내해야 할 군민 한분 한분의 고통과 인내의 시간을 생각하면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일상이 송두리째 바뀐 어려움 속에서 존경하고 사랑하는 3만여 군민들께서 코로나 확산 및 방지를 위한 노력에 힘입어 우리군은 연간 1천만 명이 찾는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방역 청정지역, 관광 단양의 위상을 굳건히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류한우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의 헌신적인 노력과 3만여 단양군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있어 가능한 일이기에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5분 발언을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단양군의 장거리 대중교통 운행 현실을 말씀드리고, 연간 1천만 명 관광객이 찾고 있는 관광 단양의 이미지에 걸맞는 장거리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단양에서 대한민국 수도인 서울 강남터미널과 경강도로 갈 수 있는 시외 또는 고속버스가 한 대도 운행되지 않는 것이 지금 단양의 장거리 대중교통 현주소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도시와 농촌, 어디에 사느냐에 관계없이 최소한의 복지 및 문화 혜택을 누리며 살아야 함은 당연지사입니다. 특히, 교통복지는 정주 여건 개선과 일자리로 연계되고 국가가 지향하는 더 나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사업의 기본 중에 기본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월이 정말 좋아졌다는 어르신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공감하는 부분도 많이 있지만, 대한민국의 중심부에 위치한 단양의 장거리 대중교통 현실은 아무리 코로나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1990년대보다 오히려 불편한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많은 관광객과 군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였던 장거리 대중교통 노선별로 몇 가지만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제3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1. 12. 22.)
조성룡 의원

단양에서 인근 제천으로 하루 18회 운행하던 직행버스가 현재는 오후 시간대에 2대만 운행하고 있고, 경상북도 영주 방면은 하루 9회 운행하였으나 현재는 한 대도 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영주□대구□김해□부산 등 경상도 방면은 직행버스 노선은 있으나 운행되는 버스가 아예 없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 강남터미널과 원주 방면도 직행버스가 운행되지 않아 농촌지역 교통복지는 차치하고서라도 주민들이 기본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 장거리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겪어야 하는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인구가 적은 농촌지역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교통복지에 있어서는 소외감마저 느끼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시외(고속)버스 인허가 관청인 충북도와 경기도에 적극적으로 요청하여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 단양역을 통과하는 중앙선 KTX 열차는 단양역에 모두 정차할 수 있도록 특별한 대응이 요구됩니다.

2021년 1월 7일부터 청량리~안동 간 신형 고속열차 KTX 이음이 개통되면서 단양을 찾는 관광객과 군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 철도 당국에 감사함을 전하며 관광객과 주민들께서 열차를 이용하면서 토로하고 있는 불편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 청량리 발 하행선은 11시 출발하여 안동역에 13시 2분에 도착하는 705호 열차와 밤 10시에 출발하여 안동역에 밤 12시에 도착하는 713호 열차가 단양역을 무정차하고 있고, 상행선은 안동역에서 13시 35분에 출발하여 청량리역에 15시 37분 도착하는 708호 열차와 안동역에서 21시 25분에 출발하여 청량리역에 23시 24분에 도착하는 714호 열차가 단양역을 무정차하고 있습니다.

KTX가 단양역을 통과하고 있지만 상·하행선 각 2개 열차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단양을 패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단양역을 무정차 하는 청량리~안동간 KTX 상·하행선 각 2개 열차가 단양역에 정차하면 철도 이용객이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중앙선에 KTX가 새롭게 개통되어 지난해와 비교할 수 없었지만 본 의원이 충북종단열차 운행과 관련하여 현장에서 직접 파악해본 결과, 단양에서 열차 승객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충북종단열차는 하루에 왕복 2회가 운행되고 있는데, 철도청에서 보관하고 있는 2017년부터 최근 5년간의 충북종단열차 이용객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단양역에서 출발하는 열차의 이용객은 2017년과 2021년 현재를 비교했을 때 37.2%가 증가했고, 심지어 오후에 출발하는 열차는 50.7%가 증가했습니다. 2018년도와 비교해도 2021년도에 이용객이 24.9%가 증가했고, 오후 열차는 34.7%가 증가했습니다.

매년 열차 이용객이 늘고 있는 데이터를 확인하면서 열차 이용객은 계속 늘고 있는데 무슨 이유에서 중앙선 KTX 이음 열차 상·하행선 각 2대씩 단양역을 무정차 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왕이면 기차여행을 즐기는 많은 이용객과 지역 주민의 교통복지 실현을 위해 집행기관에서 특별한 관심과 대응으로 단양역을 통과하는 중앙선 KTX 이음 열차가 단양역에 모두 정차할 수 있도록 철도청에 적극적으로 요청할 것을 제안합니다.

끝으로, 소외지역 대중교통 현황을 주민들의 입장에서 검토하고 정부에 강력히 건의 할 것을 촉구합니다.

단양군에서 최근 3년간 버스 복지노선 손실보상금, 재정지원금, 단일요금 지원 등으로 지원한 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도 19억 4천 6백만원, 2019년도 20억 7천만원, 2020년도 22억 7천 5백만원을 지급하는 등 재정자립도가 10%도 안 되는 단양군이지만 군민들의 대중교통 편의를 위한 예산지원 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서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시내버스 회사에 예산을 지원하듯이 중앙정부와 광역단체에서는 인구감소로 지역소멸 위기까지 처해 있는 지방 농촌지역에 대중교통 지원예산을 더 확대는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마땅하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대중교통은 국민의 든든한 발이 되어야 합니다. 편리한 대중교통은 국가 균형발전과 밀접하게 관련되고 지역 인구감소 문제 해결을 위한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보편적 교통복지 실현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여 더 많은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또한, 시외버스 등 장거리 대중교통의 원활한 운행과 단양역을 통과하는 모든 중앙선 KTX 열차가 단양역에 정차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대응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시청하고 계시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단양군민들과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시멘트지역자원시설세의 지속적인 추진과 군민을 위한 기금운용을 바라며”

존경하고 사랑하는 단양군민 여러분! 장영갑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류한우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김광표 의원입니다.

우선 코로나 사태의 엄중함 속에서도 지속적인 단양의 발전과 군민의 안전을 위해 한 해 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신, 류한우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 많으셨다는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여러모로 어려운 환경 가운데도 민의를 살피고 대변함에 있어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금번 정기 국회에서 또다시 보류된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에 관해 말씀드리고저 이 자리에 섰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업무계획에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입법”을 포함시켰습니다. 국회에 계류되어있는 수십 건의 지역자원시설세 중에서 담당 정부부처인 행안부가 유독 시멘트세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시멘트제조가 유발하는 외부불경제 효과 즉 주변에 주는 피해가 크기 때문입니다.

시멘트세는 6년간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쳐 그 입법 타당성이 검증되고, 충청북도의 특별회계 설치 등 제도적 보완을 거치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그 어느때 보다 통과 가능성이 높았으나 결국 보류되고 말았습니다.

이 법안의 부결과정을 보면서 본의원은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국회의 보류 이유에 지역의 여론이 하나 되지 못하였다는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앞서 두 번에 걸쳐 의회 본회의 자유발언을 통해 시멘트세 입법과정에서 우리 집행부의 역할을 주문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 단양군 집행부가 과연 시멘트세 과세의 중요성에 견주어 도대체 무슨 역할을 했는지 본 의원은 준엄한 질타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단양군은 과연 군민들께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고 민의를 수렴하는 역할에 얼마나 행정력을 기울였습니까? 시멘트세 입법이 군의 기본 방향이라고는 하지만, 이는 수사에 그친 것일 뿐, 우리 군 일부에서 지방재정법 동시통과라는 명분 없는 명분, 반대를 위한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는데, 집행부는 얼마나 진정성 있게 이들을 이해시켜 오셨는지요?

본 의원은 우리 군의 모호한 태도가 논란을 더욱 키우고 지역의 분열을 방치하였음을 통절히 비판합니다. 지방재정법 동시 통과는, 국회 내에서 전혀 쟁점사항도 아니었습니다. 시멘트세 보다 먼저 입법된 원자력과 화력세의 의 경우는 지방세법과 지방재정법이 비슷한 시기에 발의되어 수개월 차이 또는 동시에 시행되었습니다.

제30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1. 12. 20.)
김광표 의원

시멘트세는 21대 국회에서는 관련 3법인 지방세법과 지방재정법, 지방세기본법이 동시에 발의 되었고, 국회와 광역지자체에서도 동시 통과를 수차례 약속했기 때문에 미리 시행된 법률의 예와, 법안이 발의된 상황을 고려할 때, 충분히 이런 우려가 불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법 문제만 침소봉대했던 이유를 본 의원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는 충청북도가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시멘트세를 목적에 맞게 집행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고, 그래도 계속되는 의혹에, 본 의원과 시멘트지역자원시설세 입법 공동추진위원회가 이시종 충북도지사님과 의 면담을 통해 시멘트세로 생기는 세원 중 충청북도로 배정되는 예산은 한 푼도 남김없이, 오히려 국도비를 보태서 지역으로 내려 보내겠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하신 바 있으므로, 우리 군에 서는 향후 더 이상 이 문제로 지역 여론이 분열되지 않도록 정확하게 알려 주시고 의혹이 없도록 대처해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시멘트 생산지역들은 공통적으로 시멘트 생산에 따른 경관훼손, 환경오염, 인구 감소 등에 따른 불이익이 전가되고 있어 지역개선을 위한 재정수요 대비 열악한 재정력이 환경오염 및 주민 건강피해 증가를 일으키고 이는 다시 인구감소와 지역저 발전을 야기하여 재정 력 감소를 불러오는 악순환이 반복될 개연성이 큼니다.

2020년 기준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는 45.2%이고, 시멘트 생산지역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15.7%이나, 단양은 11.6% 밖에 되지 않아 그중 에도 심각하게 낮은 수준입니다.

우리 단양이 군민 건강과 지역 발전에 투입할 재정 확보가 시급하다는 객관적인 수치입니다. 시멘트세가 통과되면 단양 관내 시멘트 사에서 약 140억원 정도의 세수가 발생하고 이중 단양에 약 100억원 정도가 직접 배정됩니다.

2020년도 단양군 지방세 세입이 230억원 정도에 불과했던 것을 보면 이 돈이 얼마나 큰 재원이 될지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시멘트세와 그 우선 순위를 다투던 화력세는 세율 인상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미 1000억원이 넘는 세금을 걷어서 사용하고 있던 화력발전소 주변지역들은 그 두 배인 2000억이 넘는 세금을 주민건강과 지역발전에 투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역의 여론과 정치권이 한목소리로 외쳐서 이뤄낸 쾌거입니다.

화력발전과 비슷한 질소산화물 배출 피해를 받는 우리들은 왜 500억 아니 250억의 세금도 국가로부터 받지 못한단 말입니까? 이것이 진정 군민을 위한 행정이고 군민을 위한 정치입니까?

본 의원은 이 사안이 하나의 시금석이라고 봅니다. 지역을 위한 중요한 문제가 이처럼 잘못된 방향으로 귀결된다면 다른 문제들도 어 찌 이처럼 되지 않는다 할 수 있습니까?

최근 일본은 시멘트가격이 20%상승한 톤당 약 20,000원, 우리나라는 시멘트 가격이 5%가량인 톤당 약 4,000원 인상되었습니다. 시멘 트 가격의 국가 간 경쟁력에 영향이 없는데, 왜 정부는 피해 받는 주민들을 위한 인상에는 그리도 인색합니까?

시멘트업계는 가격 인상 이전인 2020년에도 평균 영업이익률 12.7%에 5000억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달성하였습니다. 이것이 주민 피해 위에 이루어진 것이기에 우리들은 심각한 지역 무사화, 주민 무시에 분노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기금에 대해서 언급하겠습니다. 시멘트사들은 기금을 세금을 저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다루면서도 그 조성에는 불성실하게 임해왔습니다. 또, 기금 조성 과정에서 해당 지자체가 철저하게 배제되어 기금 활용이 지자체의 장기적인 계획과 맞물려 집행되기 어 려운 구조입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이 기금 자체가 어떻게 조성되고 얼마나 조성되는지가 불명확하다는 것입니다. 시멘트 협회 는 기존의 사회공헌 비용을 기금에 포함하여 출연하겠다고 합니다.

국회에 제출된 자료를 분석해 보면 이 사회공헌 비용이 들쭉날쭉 일관성이 없고 기준도 명확하지 않아 신뢰할 수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시멘트 사들은 공장 내 시설투자금액이나 지역농산물 구매, 도로보수비용까지 사회공헌비용에 포함하여 기금 출연액을 부풀리고 있습니 다. 심지어 2020년 자료에서 한일시멘트는 자체 시멘트 운송비용과 지방세 납부실적까지 지역주민 지원금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군민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과연 시멘트사가 납부하는 지방세가, 그리고 시멘트 운송비용이 지역주민 지원금이 맞습니까?

향후에도 기금이 이런 식으로 조성된다면, 우리 주민들은 기대와는 달리 푼돈만 받게 될 것입니다. 또 입법을 의식하여 몇 년간은 정상적인 기금이 출연된다고 하더라도, 그 지속성도 담보할 수 없을 가능성이 큼니다. 기금운영에 관한 주춧돌을 잘못 놓는다면 추후 다양한 분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강원도 모지자체의 기금운영 규정에는 환경설비 설치나 개보수가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가뜩이나 기대보다 적은 기금이 주민피해 보상과 주민 건강 외에 엉뚱한 곳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류한우 군수님! 오늘 본 의원이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에 쓴소리를 한 것은 감정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로 정말로 중요한 이 문제를 그 중요성에 맞게 다루어 달라는 본 의원의 진정어린 성토임을 헤아려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향후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에 관해 단양군 집행부에 몇 가지 당부를 드립니다.

첫째, 지금껏 우리군을 대표하는 집행부와 의회는 지속적으로 또 공개적으로 시멘트세 입법을 지지하였습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는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시멘트세 입법을 꼭 성공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기금운용위원회의 합리적인 설립과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이 문제로 단양군 내부에서 불화와 반목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기왕에 조성된 기금은 오롯이 주민들을 위해 쓰여져야 할 것입니다.

셋째, 우리 환경을 돈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시멘트사들은 증설을 통해 소성로에 투입되는 쓰레기의 양을 늘릴 준비를 하고 있고, 그에 대한 허가권은 해당 지자체에 있습니다.

우리 단양군이 만약 시멘트사의 쓰레기 처리량을 늘려주는 결정을 한다면, 처리량의 증가가 단양군 환경과 주민 건강에 그 어떠한 영향도 없음이 증명된 이후여야 할 것임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그리고 시멘트사가 내어놓는 기금이 이에 대한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될 것임도 다시 한 번 강력히 주장합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단양의 시멘트 산업도 올해로 환갑을 맞이하였습니다.

이제는 시멘트사와 지역의 관계도 근시안적이고 단편적인 단계에서 신뢰와 상생의 성숙한 관계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처럼 지역주민의 희생에 시멘트사가 자의적으로 대응하는 구조가 아닌 시멘트 사용자가 정당한 댓가를 치르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시멘트세 입법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의견이 행안부의 입장으로 통일될 수 있도록, 또 국회가 지역을 위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시멘트 산업의 가장 큰 피해를 받고 있는, 우리 단양군 집행부의 보다 현명하고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모쪼록 시멘트산업이 우리지역과 화합하고 군민에게 사랑받는 산업으로 거듭나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며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신 존경하는 장영갑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류한우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군정질문

김광표 의원



구단양 하천부지 제척사업 추진계획과 이를 통한 단성면 소재지 발전계획

김광표 의원은 단양군수에게 '구단양 하천부지 제척사업 추진계획과 이를 통한 단성면 소재지 발전계획'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단양군수는 제척사업의 추진상황을 설명하며, 단성면 소재지에 계획 중인 단양 명승문화마을 조성사업에 대한 설명을 덧붙였다. 또한 김 의원은 제척사업으로 거주지나 영업장을 상실하게 되는 주민들 중 고향에서 현재의 생활을 다시 영위하기를 원하는 주민들에 대한 대책을 세워줄 것을 당부했다.

조성룡 의원



단양군 인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지방공무원법 등에 따라 직원들의 전문성 및 수행능력을 고려한 인사를 하였는지

조성룡 의원은 부군수에게 '단양군 인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지방공무원법 등에 따라 직원들의 전문성 및 수행능력을 고려한 인사를 하였는지'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부군수는 인사 진행 시 인사규정을 최대한 준수하여 소속직원의 개인적 고충의 충족, 개개인의 전문성과 조직 목표달성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 공정하게 인사를 실시한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추가 질문을 통해 앞으로 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규정에 따른 인사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영주 의원



단양읍, 단성면, 영춘면 등에는 관광개발 사업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나 그 외 지역에 개발 사업이 부진한 이유

김영주 의원은 단양군수에게 '단양읍, 단성면, 영춘면 등에는 관광개발 사업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나 그 외 지역에 개발 사업이 부진한 이유'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단양군수는 관광사업은 입지가 중요하므로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투자와 개발이 필요한 점을 들며 향후 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오시백 의원



국·도비사업 유치를 통한 지역발전 및 균형발전 방향'과 '관광분야 예산 투자에 비해 농업인 소득 감소, 인구 유출, 청년 실업, 노인 문제 등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쓰이는 예산이 적정한지

오시백 의원은 단양군수에게 '국·도비사업 유치를 통한 지역발전 및 균형발전 방향'과 '관광분야 예산 투자에 비해 농업인 소득 감소, 인구 유출, 청년 실업, 노인 문제 등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쓰이는 예산이 적정한지'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단양군수는 국·도비 확보 추진방향 및 현황과 지역 현안 문제에 대응하는데 쓰이는 예산비율에 대해 설명했다. 더불어 오 의원은 추가 질문을 통해 인구유입을 위한 생산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상훈 의원



드론의 활용이 급격히 늘고 있는 가운데 환경과에서는 대기환경 측정을 위해 2020년 드론장비를 도입했으나 운용인력 부족으로 장비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데 향후 효과적인 드론장비 운용방안 대책

이상훈 의원은 경제개발국장에게 '드론의 활용이 급격히 늘고 있는 가운데 환경과에서는 대기환경 측정을 위해 2020년 드론장비를 도입했으나 운용인력 부족으로 장비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데 향후 효과적인 드론장비 운용방안 대책'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경제개발국장은 드론 보유 대수와 현재 활용 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향후 직원 교육을 통해 장비 활용도를 높일 것이라고 답했다.

강미숙 의원



영춘을 중심으로 북부지역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북벽지구 테마공원 조성사업의 마스터 플랜과 2021년 12월 준공 이후 향후 계획

강미숙 의원은 농촌활력과장에게 '영춘을 중심으로 북부지역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북벽지구 테마공원 조성사업의 마스터 플랜과 2021년 12월 준공 이후 향후 계획'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농촌활력과장은 당해 사업은 단양군 관광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영춘면에 새로운 관광자원을 조성하는 목적을 가지고 3개의 공간(축양장, 복합커뮤니센터, 우량종자 배양시설)으로 구성됐으며, 향후 목적에 맞는 공간 활용으로 북벽지구 테마파크를 북부권 관광거점으로 발전 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답했다.

단양군의회 모의 의정

학생들에게 모의 의정 체험을 통해 다양한 직업관 형성에 도움을 주고, 지방자치의 근간을 이루는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알리는 기회를 제공

단양중학교 모의 의정체험 2021. 5. 27.



단양중학교 모의 의정 체험 2021. 9. 29.



매포중학교 모의 의정 체험 2021. 10. 25.



단양학생참여위원회 모의 의정 체험 2021. 10. 28.



◆ 신청방법

- 단양군의회 직접 신청: Tel) 043-420-3016 / Fax) 043-420-3019
- 단양진로체험지원센터: '꿈단지체험' 프로그램 신청 Tel) 043-422-1389 / Fax) 043-421-2941

※ 모의 의정 체험 시 단양군의회 홈페이지를 통한 생방송 송출 및 녹화본 홈페이지 게재

〈단양군 청소년의회 홈페이지: <https://council.danyang.go.kr/ch/main.do>〉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회기운영

① 본회의 운영



제30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21.12.16.)

② 특별위원회 운영



제298회 임시회 예산결산심사 특별위원회(2021.6.22)



제298회 임시회 예산결산심사 특별위원회(2021.6.22)



제304회 정례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2021.11.26.)



제304회 정례회 공유재산관리계획 특별위원회(2021.11.30.)



제302회 임시회 주요사업장현지점검 특별위원회(2021.10.5.)



제295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사후관리 특별위원회(2021.2.22.)

회기운영

③ 행정사무감사(제298회 정례회 2021.6.10.~6.18.)



④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제302회 임시회 2021.10.1.~10.7.)



의정시책 추진

① 민원순회상담제 운영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수시
김영주	강미숙	김광표	이상훈	조성룡	의장, 부의장

② 관내 사회단체와의 「민의를 듣는다」 운영



단양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2021. 12. 22.)

③ 단양군의회 연구동호회 활동

- 연구활동 기간 : 2021.4.1.~11.30.
- 연구내용 :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따른 단양군의회 발전 방안



연구동호회 간담회(수시)



단양군의회 발전 방안 연구 용역 보고회(2021.11.25.)

의원간담회

지역 현안문제 및 군정 주요업무 논의를 위한 의원간담회 개최: 21회



의정역량 강화 교육 실시



2021년 단양군의회 국가균형발전 아카데미(2021.10.12.)



4대폭력 예방교육(2021.11.25.)

기타 행사



새해 충훈답 참배(2021.1.4.)



설 명절맞이 군경소방대원 위문(2021.2.10.)



충북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정례회(2021.5.6.)



구인사 부처님 오신날 봉축법요식(2021.5.19.)



소백산 산신제(2021.5.31.)



제66회 현충일 추념식(2021.6.6.)



제300회 임시회 기념(2021.8.2.)



전국금속노조 단양수련원 개원식(2021.9.7.)

기타 행사



추석 명절맞이 군경소방대원 위문(2021.9.17.)



생산적 일손봉사 단양군민운동 발대식(2021.11.30.)



의장기 그라운드 골프대회(2021.12.2.)



생산적 일손봉사 단양군민운동 발대식(2021.11.30.)



단양군 상생발전협의회 정기회의(2021.12.20.)



단양군의회-단양군 인사운영 업무협약(2021.12.21.)

기타 행사



2021 단양군의회 종무식(2021.12.31.)



2022 단양군의회 시무식(2022.1.3.)



임용장 수여식(2022.1.12.)



임용장 수여식(2022.1.12.)



충청신문

2021년 01월 21일 (목)
12면 지역



단양군의회 장영갑 의장·오시백 부의장이 '자치분권 기대해' 챌린지에 동참했다. (사진=단양군 제공)

단양군의회 장영갑 의장·오시백 부의장

'자치분권 기대해' 챌린지 동참

단양군의회 장영갑 의장과 오시백 부의장은 지난 19일 자치분권 2.0시대 개막을 응원하기 위해 '자치분권 기대해' 챌린지에 동참했다. 장영갑 의장은 천명숙 충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오시백 부의장은 배동만 제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지목을 받아 '군민이 주인이 되는 자치분권 시대'를 지지하는 뜻이 담긴 꽃말을 들고 캠페인을 이어갔다. '자치분권 기대해' 챌린지는 지난해 12월 9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자치분권 대전환기를 준비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시작

한 캠페인이다.

한편 다음 캠페인 주자로 장영갑 의장은 이준배 단양경찰서장, 김유순 인천 계양구의회 의장, 김홍철 제천시의회 의원을 지목했고, 오시백 부의장은 김병권 제천시의회 의원, 김대순 제천시의회 의원을 지목했다. 장영갑 의장은 "32년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새로운 자치분권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며 "군민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자치분권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단양군의회가 앞장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단양/정연환 기자
jyh3411@dailycc.net
10.2 X 17.7 cm

충청신문

2021년 02월 01일 (월)
12면 지역

단양군의회 장영갑 의장

'고맙습니다. 필수노동자' 챌린지 동참

단양군의회 장영갑 의장은 지난 29일 코로나19 장기화 상황 속에서도 대면 업무를 지속하고 있는 필수노동자들에게 응원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고맙습니다. 필수노동자' 캠페인에 동참했다.

장영갑 의장은 배동만 제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지목을 받아 '고맙습니다. 필수노동자'라는 문구가 적힌 꽃말을 들고 캠페인을 이어갔다.

이 캠페인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도 직업 특성상 불가피하게 대면 업무를 해야 하는 보건 의료 종사자, 환경미화원, 돌봄서비스 종사자, 배달업 종사자 등 필수노동자를 격려하고 응원하는 취지로 시작된 캠페인이다.

장영갑 의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상황 속에서도 위험부담을 감수하고 묵묵히 일하고 계신 필수노동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장영갑 단양군 의회의회장이 고맙습니다 필수노동자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다. (사진=단양군의회 제공)

한편 장영갑 의장은 다음 캠페인 주자로 강규원 단양군 보건소장, 오히군 NH농협은행 단양군지부장, 조동희 단양군의용소방대연합회장을 지목했다.

단양/정연환 기자
jyh3411@dailycc.net

11.2 X 16.7 cm

충청신문

2021년 02월 10일 (수)
12면 지역



단양군의회 장영갑의장, 설 맞이 사회복지시설 위문품 전달

단양군의회는 지난 8일 설 명절을 맞아 관내 사회복지시설 7곳에 위문품을 전달했다. 이번 일정은 코로나19의 감염예방을 위해 장영갑 의장이 대표로 시설내부 방문 없이 물품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어려운 시기지만 사회 곳곳에 온정을 나누며 함께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화장지, 쌀 등 생필품을 전달했다.

(사진=단양군 제공)
11.2 X 9.7 cm

충청투데이

2021년 02월 22일 (월)
14면 지역

장영갑 의장 '동서고속도로 조기개통' 챌린지



단양군의회 장영갑 의장은 19일 국가 균형발전의 뜻을 담아 '동서고속도로 조기개통' 챌린지에 동참했다. 장영갑 의장은 류한우 단양 군수로 부터 지목을 받아 '지역균형 뉴딜'로 시작해 '평택~삼척간 고속도로'로 라는 문구가 적

힌 꽃말을 들고 캠페인을 이어갔다. 장영갑 의장은 "도로교통의 편의 증진은 그 어떤 국가기반사업보다 파급효과 크다고 생각한다"며 "국가균형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동서고속도로의 조기개통을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 챌린지는 지난해 동서고속도로 제천~영월 간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에 이어 남은 구간인 영월~삼척 구간의 개통을 염원하고자 '동서고속도로 추진협의회'가 올해 처음 시작한 캠페인이다.

단양=이상복 기자 cho225@ccctoday.co.kr

8.2 X 12.5 cm

금강일보

단양군의회 “영월 폐기물매립시설 조성 반대”

2021년 03월 30일 (화)
16면 지역

진급 의원간담회 열고 성명서 발표
남한강 수질오염·환경훼손 등 지적

충북 단양군의회(의장 장영갑) 의원 일동은 29일 오전 10시에 긴급 의원간담회를 열어 쌍용양회공업(주)에서 추진 중인 영월군 쌍용리 폐광산 지역 폐기물매립시설 조성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쌍용양회는 시멘트 제철 종료지구에 매립 면적 19만 1225㎡, 매립기간 16년, 매립용량 560만 톤의 대단위 폐기물을 매립할 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번 폐기물매립시설 조성 예정지역 일원은 지하에 수많은 물리와 동공이 존재하는 카르스트 지형으로 지형 특성상



단양군의회는 29일 긴급 의원간담회를 열고 쌍용양회공업(주) 영월군 쌍용리 폐광산 지역에 추진 중인 폐기물매립시설 조성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침출수 유출 시 지하수 오염으로 인한 확산 상류 수질오염 및 환경훼손 등 그 피해가 광범위하게 발생할 우려가 높은 지역이다. 이에

군 의회는 영월지역에 조성 예정인 대단위 폐기물처리장 설치에 남한강을 취수원으로 하는 인근 단양, 제천, 충주 지역에 심각한 환경문제를 초래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해당 시설 조성에 반대 입장을 확고히 했다.

군 의회 의원들은 “지난 60여 년 동안 국가 기간산업이라는 미명아래 파헤쳐 놓은 시멘트 공장지역과 폐광지역을 친환경적으로 복구하는 것이 지역주민에 대한 인자성정(人之常情)”이라며 “그동안 다량의 본진과 약취로 고통받아온 지역주민과 인근 지자체 주민 모두가 깨끗한 환경에서 수준 높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단양=강두원 기자 kdw@ggilbo.com

28.4 X 10.8 cm

충청신문

2021년 09월 01일 (수)
12면 지역



단양군의회, 농가 일손 돕기 구슬땀
찾아 일손을 보태며 구슬땀을 흘렸다.

단양군의회 장영갑 의장을 비롯해 군 의원, 의회 직원 등 15명은 31일 본격적인 고추 수확철을 맞아 고령에 시작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상천면 한 농가를

(사진=단양군의회 제공)

16.9 X 7.1 cm

충청신문

단양군의회 ‘원포인트’ 300회 임시회 개최

2021년 08월 02일 (월)
12면 지역

지방세 감면 동의안 처리

단양군의회는 2일 ‘원포인트’ 제300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단양군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처리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기에 부의된 ‘단양군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최근 지역 내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 및 전국적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영업 상 많은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 세제를 감면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주민세가 본격 부과되는 8월 초 이전에 감면 동의안을 신속히 처리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긴급히 이번 임시회를 개최하게 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에 따른 집합금지업종 및 영

업제한업종 개인사업자 주민세 감면, 착한임대인 재산세 50% 감면, 고급오락장 과세를 인하, 교통운수사업자 자동차세 감면 등이다.

단양군의회 장영갑 의장은 임시회에 앞서 “올해는 단양군의회 개원 3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인 동시에 급변 임시회는 단양군의회에서 300번째로 개최되는 의미 있는 임시회이다”라며 “지난해년에 이어 올해까지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 여름 휴가철이면 관광객으로 복적이던 단양의 모습을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원포인트 임시회에서 다루는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단양/정연환 기자 jyh3411@dailycc.net

11.1 X 11.9 cm

충청신문

장영갑 단양군의회 의장

2021년 09월 27일 (월)
12면 지역

단양군의회 장영갑 의장이 지난 24일 인종차별 반대 글로벌 캠페인 ‘리브 투게더’(Live Together) 캠페인에 동참했다.

이번 캠페인은 유네스코와 외교부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캠페인으로 모든 인종차별과 혐오범죄를 멈추고 사랑으로 나아가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장영갑 의장은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로 모두가 힘든 시기에 인종차별과 혐오범죄는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사람은 누구나 평등하고 존중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충주시의회 천명숙 의장은



단양군의회 장영갑 의장이 지난 24일 ‘리브 투게더’인종차별 반대 글로벌 캠페인에 동참했다.

(사진=단양군의회 제공)

로부터 지목을 받은 장영갑 의장은 다음 참여자로 NH농협 오히근 단양군지부장을 지목했다.

단양/정연환 기자

jyh3411@dailycc.net

10.2 X 10.4 cm



단양군의회, 농가 일손 돕기 '구슬땀'
흘렸다.

단양군의회는 24일 군의회 장영갑의장을 비롯해 군 의원들이 거동이 불편해 농사에 어려움을 겪는 단양읍 후곡리 마을 한 농가를 찾아 일손돕기에 구슬땀을

〈사진=단양군 제공〉

16.9 X 8.4 cm

장영갑 단양군의회장,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유치 응원

충북 단양군의회 장영갑(사진) 의장이 3일 '2027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충청권 유치 응원 캠페인'에 동참했다.

충주시의회 천명숙 의장의 지목받은 장 의장은 '2027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유치 함께 뛰겠습니다'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다음 참여자로 단양교육지원청 서주선 교육장과 NH농협은행 단양군지부 오희균 지부장을 지목했다.

이번 캠페인은 2027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유치에 대한 도민의 관심을 유도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충청권 4개 시도에서 펼쳐지고 있는 캠페인이다.

장 의장은 "충북·대전·세종·충남이 뜻을 모아 2027하계세계대학경기 공



동 유치에 대한 문체부 승인을 얻어냈다"며 "4개 시도가 공동으로 유치하는 만큼, 각 지자체의 행정적인 지원과 범시민적인 참여가 반드시 필요함에 따라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박연수기자

11.1 X 9.9 cm



단양군의회, 사회복지시설 위문품 전달 충북 단양군의회(의장 장영갑)는 추석 명절을 맞아 관내 사회복지시설 7곳에 위문품을 전달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으로 시설 내부 방문 없이 물품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9.6 X 6.1 cm

충청신문

2021년 09월 30일 (목)
12면 지역



단양군의회가 29일 단양중학교 학생 대상으로 '2021 꿈단지체험 행사'를 진행했다.
(사진=단양군의회 제공)

단양군의회, 단양중학생 '꿈단지체험'

모의 의정 체험 통해 의원 역할 경험·안전 심의과정 체험

단양군의회는 29일 군의회 본회의장에서 단양중학교 학생 대상으로 '2021 꿈단지체험 행사'를 진행했다. 단양진로체험지원센터 주관으로 열린 이번 체험은 청소년들이 다양한 직업 체험을 통해 스스로 진로를 설계하고 행복한 비전을 꿈 꿀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단양중학교 학생 20여명은 모의 의정 체험을 통해 직접 의원의 역할을 경험했으며 지방

의회에서 다루는 안전들의 심의과정을 체험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장영갑 의장은 "지방자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래 꿈나무인 우리 학생들이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본원리를 직접 체험해 지방의회를 이해하고 미래의 진로 선택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길 바란다"고 말했다.

단양/정연환 기자
jyh3411@dailycc.net
11.2 X 16.6 cm

충청신문

2021년 11월 29일 (월)
12면 지역



단양군의회, 4대 폭력 예방 교육

단양군의회는 지난 25일 의원과 회사무과 직원을 대상으로 4대 폭력(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 교육을 했다. 교육은 한국범죄학연구소 민수진 선임연구원을 초청해 '우리사회의 4대 폭력 실태 파악 문제의식 제고' 및 '4대 폭력으로 인한 인권침해 예방 방안 수립'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했다.

(사진=단양군제공)
11.2 X 8.9 cm

충청투데이

단양군의회 올해 의사일정 마무리

단양군의회는 22일 제3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올해 의사일정을 마무리한다.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진행된 제305회 임시회에서 32년 만에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을 앞두고 단양군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 등 총 36건의 조례·규칙·규정을 제·개정해 군정에 대한 주민참여 네트워크 강화 및 지방의회 역할 증대를 위

한 준비를 마쳤다.

2021년은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전력을 다한 한 해였다. 단양군의회는 총 12회 106일 간의 회기를 운영하며 모든 의정의 초점을 '군민의 삶의 안정'에 두고 발로 뛰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특히 지난 9월 24일 집행부와와 긴급 간담회를 통해 정부의 코로나19 상생 국민지

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군민(전 군민의 7.2%)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고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고자 충청북도 지자체 중 최초로 예비비를 사용해 상생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지난 8월 1일에는 코로나 극복을 위한 원포인트 제300회 임시회를 열어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에 따른 집합금지 업종 및 영업제한업종 개인사업자 주민세 감면 ▲착한임대인 재산세 50% 감면 ▲고급오락장 과세를 인하 ▲교통운수사업자 자동차세 감면 등의 내용을 담은 '단양군 지

방세 감면 동의안'을 만장일치로 처리하기도 했다.

장영갑 의장은 "올해 단양군의회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기를 살리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군민의 안정된 삶의 회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코로나19의 종식은 그 끝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임인년 새해에도 우리 의원 일동은 코로나19로부터 군민들을 안전하게 지켜내기 위해 모든 의정역량을 쏟을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단양=이상복 기자 cho2225@ctoday.co.kr

25.7 X 6.3 cm



2022년도 회기운영계획(안)

회 수	회 기	일수	주 요 안 건 (예정)
제306회 (임시회)	2. 11. ~ 2. 22.	12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사업장 점검결과 사후관리보고(또는 주요업무 계획 청취) ○조례안 및 기타 부의안건
제307회 (임시회)	3. 24. ~ 3. 31.	8	○2022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2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2021회계연도 결산감사위원 선임의 건 ○기타 부의안건
제308회 (임시회)	7. 4.	1	○제9대 의회 의장, 부의장 구성의 건
제309회 (임시회)	7. 19. ~ 7. 27.	9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청취의 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조례안 및 기타 부의안건
제310회 제1차 (정례회)	9. 19. ~ 10. 7.	19	○2022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2021년도 예산·재무회계 결산 및 예비비 승인 ○조례안 및 기타 부의안건
제311회 (임시회)	10. 18. ~ 10. 27.	10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조례안 및 기타 부의안건
제312회 (임시회)	11. 8. ~ 11. 11.	4	○2023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청취 ○기타 부의안건
제313회 제2차 (정례회)	11. 22. ~ 12. 16.	25	○군정질문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2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조례안 및 기타 부의안건

총 8회기 88일 (정례회 2회 44일, 임시회 6회 44일)

단양군의회 의원 현황

의장 장영갑

군민과 함께, 행복과 희망을 만드는 의회

〈더불어민주당〉

가 선거구 / 3선

- 제5대 단양군의회 의원
- 제6대 단양군의회 후반기 부의장
- (현) 단양중학교 운영위원장

T. 420 - 3000



부의장 오시백

군민과 함께, 행복과 희망을 만드는 의회

〈더불어민주당〉

나 선거구 / 초선

- (전)전국한국화학노동조합 성신양회 위원장
- (전) 단양군 새마을회 이사
- (현)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시멘트산업 특별위원장
- (현) 매포초등학교 총동문회 회장

T. 420 - 3001



의원 김광표

군민과 함께, 행복과 희망을 만드는 의회

〈국민의 힘〉

가 선거구 / 초선

- (전) 민주변지지역지원협의회 단양군민 대표
- (전) 충청북도 교육청문관
- (현) 단양교육행정협의회 위원
- (현) 단성중학교 운영위원장

T. 420 - 3004



의원 조성룡

군민과 함께, 행복과 희망을 만드는 의회

〈국민의힘〉

가 선거구 / 초선

- (전) 단양군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부회장
- (현) 황정초등학교 총동문회 회장
- (현) 단양중 한국호텔관광고 총동문회 고문
- (현) 월대비전 단양군지부 부지부장

T. 420 - 3003



의원 김영주

군민과 함께, 행복과 희망을 만드는 의회

〈더불어민주당〉

나 선거구 / 5선

- (전) 단양군농촌지도자 연합회장
- (전)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상임위원
- 제1대, 제3대, 제7대 단양군의회 부의장
- 제8대 단양군의회 전반기 의장

T. 420 - 3006



의원 이상훈

군민과 함께, 행복과 희망을 만드는 의회

〈국민의힘〉

나 선거구 / 초선

- (전) 단양군청년연합회 회장
- (전) 단양청년회의소 회장
- (현) 법무부 법사랑위원회 제천단양연합회 위원

T. 420 - 3002



의원 강미숙

군민과 함께, 행복과 희망을 만드는 의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 초선

- (전) 세경대학교 미술치료사 강사
- (전) 대원대학교 사회복지과 강사
- (전) 단양노인장애태복지관 부관장
- (현) 단양군 사회복지사협회 고문
- 제8대 단양군의회 전반기 부의장

T. 420 - 3005



의회 전화번호

2층 > 의장실, 의원사무실, 전문위원실



장영갑 의장실	T. 420-3000	오시백 부의장실	T. 420-3001
김광표 의원실	T. 420-3004	조성룡 의원실	T. 420-3003
김영주 의원실	T. 420-3006	이상훈 의원실	T. 420-3002
강미숙 의원실	T. 420-3005	부속실	T. 420-3007 T. 420-3009
의회사무과장	T. 420-3010	전문의원실 I	T. 420-3020
전문의원실 II	T. 420-3021	의정팀장	T. 420-3011 T. 420-3019
의사팀장	T. 420-3031 T. 420-3019		





군민과 함께

행복과 희망을 만드는 의회



단양군의의회

충북 단양군 단양읍 중앙1로 10 TEL. 043)420-3011 FAX. 043)420-3019